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1 in C major, K. 551 “Jupiter”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완성: 1788년 8월 10일, 빈
첫 연주: 일시와 장소 미상
범위: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 전곡

IMSLP: Symphony No. 41 in C major, K. 551

Wikipedia: Symphony No. 41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의 *Symphony No. 41 in C major, K. 551 “Jupiter”*는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이며 , 여기서는 편곡이나 발췌가 아닌 전곡을 다룬다. Allegro vivace, Andante cantabile, Menuetto. Allegretto – Trio, Molto Allegro가 차례로 놓인다. Mozart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이지만 첫 연주의
일시와 장소는 전해지지 않는다.

마지막 교향곡의 자리와 이름

Mozart는 1788년 여름 자신의 작품목록에 K. 543을 6월 26일, K. 550을 7월 25일, K. 551을 8월 10일자로 기록했다. 마지막 세 교향곡이 짧은 기간에 이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공연을 위해 썼는지, 세 곡을 처음부터 하나의 연작으로 구상했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1789년과 1790년의 공연 자료에 나오는 ‘Mozart의 교향곡 ’ 역시 K. 551을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1788년 이후 몇 년간 아무도 이 곡을
연주하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도, 어느 한 공연을 초연으로 지목할 근거도 없다.

Jupiter는 Mozart가 자필 총보에 적은 표제가 아니다. 로마 신화의 이름은 사후 영국에서 이 교향곡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다. Karsten Nottelmann이 2026년에 조사한 1813년 Bath와 London의 신문에는
이미 그 별칭이 등장한다. Johann Peter Salomon이 붙였다는 익숙한 이야기는 그보다 뒤인 1829년, Mozart 의 아들 Franz Xaver에게서 들은 말을 Vincent Novello가 기록한 간접 전승이다. 명명의 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별칭은 악장마다 신화적 사건을 대응시키는 표제가 아니라 19세기 청중이 작품을 부른 이름이다.

출판 정보와 자료

K. 551의 자필 총보는 48엽에 기보된 91쪽으로, 현재 Staatsbibliothek zu Berlin에 있다. 1957년 Neue Mozart-Ausgabe를 편집한 H. C. Robbins Landon은 그때 자필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1923년 팩시밀리를 사용했다. 당시 서문의 ‘소재 불명 ’을 현재의 소장 상태로 읽으면 판본의 역사와 자료의 현재가 뒤섞인다.

Johann André Mozart 1793 Offenbach *Grande Sinfonie*, 38, 622 . London Cianchettini & Sperati 1807 1810 . 1793 London

Landon NMA IV/11/9 Bärenreiter BA 4703 . André 1 2 ‘ ’ Cliff Eisen Breitkopf PB 5292 Urtext .

30 40 . The Cleveland Orchestra Breitkopf 30 . Charles Mackerras Scottish Chamber Orchestra 2007 38 . 1 11 , 2 10 , 3 5 , 4 12 .

	Flauto; Oboi I–II; Fagotti I–II
	Corni I–II in C; Clarini I–II in C
	Timpani in C–G
	Violini I–II; Viole; Violoncelli e Bassi

Clarini C 1·3·4 C , C–G . 2 F .

I. *Allegro vivace*

제 1악장은 다장조의 강한 합주로 C음의 옥타브를 세 차례 내세우고, 곧 여린 현악기 선율로 응답한다. 서로 다른 크기와 어법의 음악이 가까이 놓인 출발이다. 도입의 강한 음형이 다시 조용히 나타날 때에는 플루트와 오보에가 대선율을 붙인다. 처음의 재료가 합주와 목관 ·현악의 대화로 모습을 바꾸는 셈이다.

뒤이어 노래하는 선율이 나타나지만 흐름이 매끈하게 이어지기만 하지는 않는다. 쉼 다음에 갑작스러운
다단조 합주가 끼어들고, 다시 한 번 쉰 뒤 새로운 가벼운 선율이 나온다. 이 마지막 선율은 Mozart가 같은
해의 아리아 Un bacio di mano, K. 541에 쓴 음악을 가져온 것이다. 갑작스러운 단조 화음과 쉼을 지나 성악곡에서 온 선율이 제시부의 끝에 놓인다.

제시부를 반복한 다음 전개부는 바로 그 뒤쪽 선율을 변형하며 시작한다. 조성과 성부 배치가 바뀌는 가운데, 처음의 강한 음형과 플루트 ·오보에 대선율이 돌아오는 듯한 순간도 있다. Orrin Howard의 LA Phil 해설은 이 대목이 아직 전개부에 속하며 본격적인 재현은 그 뒤에 온다고 구분한다. 앞에서 서로 떨어져 있던 합주, 노래, 아리아 인용을 재료로 삼아 전개한 뒤 첫 악장이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II. Andante cantabile

제 2악장의 조성은 바장조다. 약음기를 낀 현악기가 조심스럽게 선율을 시작하고, 곧 계류음의 불협화음과
당김음이 노래의 표면을 흔든다. 처음에는 완만한 흐름 속에 섞여 있던 긴장이 단조의 바이올린 음형에서
두드러진 뒤, 찬가풍의 다른 재료가 나타난다. 그 대목에서는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선율을 주고받는다 .

앞부분의 반복 뒤에는 당김음이 강해지는 구간이 이어진다. 고조를 지난 첫 선율은 장식을 입고 되돌아오며 , 새로운 연결을 거쳐 앞서 들린 찬가풍 재료와 만난다. 종결부는 첫 선율을 다시 떠올린다. 처음의 노래를
제시하고 긴장된 재료를 거쳐 장식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악장 전체를 이룬다.

Landon의 BA 4703 서문은 이 악장의 fp를 실제 음의 처리와 연결한다. 그는 19마디 이후, 특히 목관 23–25 마디의 표기를 강한 첫 어택이 즉시 사라지는 효과보다 f에서 p로 점차 줄어드는 효과로 해석했다. 목관의 음이 강하게 시작해 약해지는 과정을 얼마 동안 들려줄지에 관한 편집자의 구체적인 견해다.

III. Menuetto. Allegretto – Trio

미뉴에트는 다장조와 트럼펫 ·팀파니가 들어오는 편성으로 돌아온다. 세 박자의 춤이지만 구절이 진행하면서
강세를 놓는 자리가 바뀐다. 저음이 박을 유지하는 동안 위쪽 선율이 강세를 움직여, 같은 박자 안에서도
구절의 방향이 달라진다.

트리오는 끝맺음처럼 들리는 두 화음으로 시작한다. 그 화음이 끝에도 돌아와 선율의 마침과 다음 시작을 잇는다. 한가운데에는 가단조의 강한 합주가 끼어들어 부드러운 흐름을 잠시 중단한다. 트리오가 끝나면
미뉴에트가 되돌아와 악장을 닫는다. 이 악장의 대비는 새로운 악기 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박의 강조,
종지처럼 들리는 시작, 단조 삽입과 복귀가 한 춤곡 안의 표정을 바꾼다.

IV. Molto Allegro

피날레는 C–D–F–E의 네 음으로 시작한다. 짧은 네 음은 악장의 첫 주제이자 뒤에서 모방과 결합의 중심이
되는 재료다. 다른 짧은 선율들이 차례로 등장하므로 처음에는 빠른 소나타 형식의 피날레로도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재료들은 각자 한 번씩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대선율이 되도록 놓인다. 전개부에서는 모방과 대위적 결합이 더욱 촘촘해진다 .

마지막 코다 앞에는 잠깐의 멈춤이 있다. 그 뒤 첫 네 음과 앞서 제시된 다른 네 동기가 동시에 맞물린다. Martin Pearlman은 이 결말을 다섯 동기의 결합으로, Hugh Macdonald는 첫 주제가 푸가 주제의 구실까지 맡는 형식적 결말로 설명한다. 악장 전체가 독립적인 한 편의 푸가인 것은 아니다. 소나타 형식의 진행 속에서 각 재료를 먼저 익히게 한 다음, 확장된 코다가 그 재료들을 함께 들려준다. 트럼펫과 팀파니가 돌아온
다장조의 종결은 이 복잡한 성부 진행 위에 놓인다.

Herbert Blomstedt는 2018년 Boston Symphony Orchestra 공연을 두고 한 인터뷰에서 피날레 초반과 끝의 여러 선율을 직접 노래하며 설명했다. 그가 짚은 것은 정교하게 얽힌 작곡이 청자에게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점이다. 피날레의 복잡한 성부 관계를 실제 들리는 결과와 연결한 지휘자의 설명이다.

반복, 빠르기와 세 교향곡의 관계

Mozart의 반복을 실행하는 범위는 현대 음반에서도 한 가지가 아니다. Mackerras와 Scottish Chamber Orchestra의 2007년 녹음은 모든 악장의 반복을 지켜 약 38분에 이른다. Tony Haywood는 이 녹음에서 피날레의 대위법이 선명하면서도 활기를 잃지 않는다고 평했지만, 미뉴에트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보았다 . Herbert Blomstedt와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음반도 미뉴에트가 돌아오는 부분까지 반복해 약 40분이 된다. Misha Donat는 피날레 후반의 반복이 마지막 코다를 더 두드러지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 다른 반복에서는 재등장한 음악이 새롭게 들리는지 유보했다. 반복을 모두 한다는 공통점
안에서도 악장별 속도와 종결의 비중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René Jacobs와 Freiburger Barockorchester의 음반에서는 제 1악장의 Un bacio di mano 인용 대목이 잠시 느려진다. Tom Service는 원래 아리아의 속도를 떠올리게 하는 국소적 선택으로 이 녹음을 설명했다. 이는 Mozart가 교향곡 악보에 따로 적은 속도 변경이 아니라 한 지휘자의 해석을 비평가가 관찰한 사례다. 아리아의 선율을 곧게 이어 갈 수도, 출처가 다른 음악처럼 잠시 부각할 수도 있다는 선택이 제 1악장의 흐름을 실제로 바꾼다.

Nikolaus Harnoncourt는 2009년 인터뷰에서 1788년의 세 교향곡을 하나의 ‘기악 오라토리오 ’처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 39번에만 느린 서주가 있고 제 41번에 온전한 피날레가 있으며 세 곡 사이에 주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근거였다. 그는 Concentus Musicus Wien과 함께 시대악기로 세 작품을 묶어 녹음하고 공연했다. 2014년 음반을 들은 Andrew Clements는 제 39번에서 제 40번으로 쉬지 않고 넘어가는 선택과 제 41번 피날레를 전체의 결말로 듣게 하는 효과를 설명하면서 , 세 교향곡을 연속 작품으로 연주하도록 했다는 Mozart의 문헌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속 구상은 작곡 당시 계획이 아니라 작품들을 새로 묶어 들려준 후대의 해석이다.

Simon Rattle도 2025년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공연을 앞둔 인터뷰에서 Harnoncourt와 고음악 운동이 자신의 Mozart 이해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악 오라토리오 ’라는 구상을 자신은 실연으로 구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세 작품을 한 공연에 놓으면서도 Harnoncourt의 연결 방식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이 차이는 제 41번을 독립적인 네 악장 교향곡으로 마무리할지 , 세 작품 전체의 종결로 확대해 놓을지를 둘러싼 현대의 실제 해석 범위를 보여 준다.

주요 자료

Internationale Stiftung Mozarteum, 신쾨헬 KV 551: 완성일, 자필 총보, 초판, 공식 편성과 악장
구성을 기록한다.

Mozarteum, NMA IV/11/9 차례: 네 악장의 순서와 빠르기말을 확인한다.
H. C. Robbins Landon, NMA IV/11/9 서문: 초연의 한계, 출판 연표와 편집 당시의 자필 자료 상황을 설명한다.
H. C. Robbins Landon, Bärenreiter BA 4703 서문: 자필과 초판의 관계, 슬러의 편집 표기, 제 2 악장 fp 독법을 밝힌다.
Hugh Macdonald, The Cleveland Orchestra 해설: 편성과 피날레의 첫 주제 ·대위 결합을 설명한다.
Orrin Howard, LA Phil 해설: 제 1악장의 여러 주제와 예비 귀환, 제 2악장의 긴장을 설명한다. Martin Pearlman, Boston Baroque 해설: 제 1악장 도입, 미뉴에트의 트리오와 피날레의 다섯 동기 결합을 다룬다.
Houston Symphony, Music for the Gods: 첫 세 악장의 순서와 아리아 인용의 위치를 설명한다. Karsten Nottelmann, 1813년 영국 신문 조사: Jupiter 별칭의 이른 용례를 제시한다.
Herbert Blomstedt, Boston Symphony Orchestra 공연 인터뷰: 피날레의 다성 결합에 관한 지휘자의 직접 설명을 전한다.
Nikolaus Harnoncourt, 2009년 인터뷰 와 2014년 공식 음반 ·공연 자료: ‘기악 오라토리오 ’ 가설과 시대악기 공연의 실행을 연결한다.
Andrew Clements, Harnoncourt 음반평: 그 해석의 실제 효과와 역사적 증거의 한계를 평가한다. Simon Rattle, 2025년 BR-KLASSIK 인터뷰: 고음악 운동의 영향과 세 교향곡을 묶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Tony Haywood, Mackerras 음반평 과 Linn CKD 308의 트랙 정보: 전 반복, 악장별 시간, 미뉴에트 ·피날레에 대한 비평을 확인한다.
Misha Donat, Blomstedt 음반평: 전 반복과 피날레 코다의 비중에 대한 평을 전한다.
Tom Service, 제 41번 음반 비교: René Jacobs의 제 1악장 인용부 속도 선택을 기록한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3:59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3:59 UTC by 안준영